

서서평·김필레·현덕신...빛고을 밝힌 근대여성 시대정신 향유

“‘두흡길’·‘백단심길’·‘홍단심길’ 함께 걸어요”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 두흡길’ 총 3개 코스 운영

서서평과 김필레, 현덕신 등 광주지역 근대 여성들의 역사적 발자취를 따라 진취적인 시대정신을 함께 향유하는 도보투어 프로그램이 모두 3개 코스로 구성, 운영된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5일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홍단심길’을 포함, 총 3개 코스의 ‘광주여성 두흡길’ 도보프로그램이 연중 실시된다”고 밝혔다.

‘광주여성 두흡길’은 재단이 2022년부터 남구 양림동과 동구 충장로 일대에 ‘광주여성사 길’을 개발, 시민과 향유하고자 하는 문화콘텐츠 사업이다.

현재 ▲두흡길 ▲백단심길 ▲홍단심길 총 3개의 길을 개발,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보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개발된 ‘두흡길’은 독일 출신 미국 선교사로 양림동에서 활동했던 서서평의 발자취를 집중 조망한다. 오웬기념각, 조아라기념관, 유진벨 선교기념관, 선교사 묘역, 허마르다 선교사사택, 수피아여고 담, 서서평 벽화를 돌며 광주여성근대교육과 함께 당시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길이다.

서서평은 한국 근대여성 교육의 씨를 뿌리고 여성들의 자립 및 여성 인권

을 위한 사업 등을 주도했다. 특히 1934년 사망하면서 시신마저 기증한 서서평은 광주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던 헌신적인 인물이다. ‘두흡길’이라는 명칭 또한 그녀가 사후 유산으로 남긴 담요 반장, 동전 27전, 보리쌀(곡식) 두흡에서 비롯됐다.

두 번째 코스 ‘백단심길’은 김필레를 중심으로 한다. 양림동 행정복지센터 터에서 옛 송일학교 담, 3·1운동 담, 3·1운동 아리랑길, 수피아여고 담, 최홍중 기념관 등을 돌며 광주여성들의 독립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성평등 관점에

서 들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홍단심길’ 코스는 광주 학생독립운동과 총장로 여성 역사를 담고 있다. 이 길에서 조명하는 주요 인물은 광주 최초의 여의사이며 한국근대 우회 광주지회 설립 등 사회운동과 유아교육 등에도 앞장섰던 현덕신이다.

금남공원, 옛 화니백화점 터, 전남여고 박물관, 흥학관, 신문잡지종람소터 순으로 돌아본다. 이와 관련, 재단은 ‘광주여성 두흡길’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계 연계에 의해 최근 광주 동구청 문화관광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두흡길’ 프로그램뿐 아니라 동구 제8회 광

주문화유산야행(4월26-27일), 재단 기획전시 ‘광주여성길’(4월12일 오픈)까지 아울러 협력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광주여성 두흡길’ 도보투어를 통해 시민들이 근대역사와 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과정 속 인물들의 진취적인 모습과 함께 근대여성인물들을 성평등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 두흡길’은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며, 전문해설사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70-0531)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0월 운영을 시작한 ‘홍단심길’을 포함해 총 3개 코스의 ‘광주여성 두흡길’ 도보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여성 두흡길’에 참여한 시민들의 모습.

‘대동문화’, 올해로 9번째 한국잡지협회 ‘우수콘텐츠’ 선정

지역 문화단체 대동문화의 문화잡지 ‘대동문화’(사진)가 올해 한국잡지협회 우수콘텐츠 잡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대동문화’는 현재 141호(3·4월)가 발행됐다.

1985년 창립 이후 대동문화재단은 ‘대동문화’를 발간해 전국 문화예술 소식을 담아내는 전문지로 성장시켰다.

2010년 2월 한국 ABC협회에 가입, 공신력을 얻고 있으며 같은 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우수 콘텐츠 잡지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번째 우수 콘텐츠 잡지로 선정돼 브랜드 가치를 인정 받았다.

‘대동문화’ 잡지는 100여 쪽으로, 문화예술 관공 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전



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전통문화·역사·문화예술·관광문화 등 차별화된 특화 콘텐츠와 읽을거리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상열 발행인은 “시민 독자와 지역 사회 리더들로 구성된 200여명 운영 이사회의 지원과 관심으로 ‘대동문화’가 꾸준히 발행되고 있다”며 “디자인과 콘텐츠 모든 면에서 전문적인 인정을 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푸른 숲 체험하고,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도 보고



광주박물관으로 떠나는 문화나들이

4-10월 어린이 동반 가족 대상 프로그램 ‘다채’

국립광주박물관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펼친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일 1회 진행되는 ‘토요 어린이를 위한 공연’은 가족들이 함께 즐기며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매직쇼 및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다음달 20일 주니엔터테인먼트의 ‘공룡에니멀쇼’ 공연을 시작으로 5월18일에는 김드로잉연구소의 ‘오리지널 드로잉쇼’ 공연이 오후 4시 박물관 대강당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 박물관 숲 이야기’는 박물관 정원에서 숲 해설과 함께하는 체험 프

로그램으로, 총 6회 진행된다. 정원 속 다양한 식물을 활용해 광주박물관만의 색다른 매력을 느껴볼 수 있으며,

매일 다른 주제로 진행된다. <사진> 4월에는 ‘푸른 미르 나르샤, 용이 피었네용’을 주제로 박물관에서 용을 찾고 정원 내 꽃과 연계한 오브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4·6월, 10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운영된다. 8·9월에는 월 1회 평일 저녁에 진행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위한 사전예약이 필수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ACC 교육 듣고 문화예술 전문가 꿈 키워요”

28일 ‘ACC 전문인’ 교육 설명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8일 오후 2시 ACC 국제회의실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과 기획 분야를 이끌 ‘ACC 전문인’ 교육 설명회를 개최한다.

ACC는 예술과 기술, 문화를 아우리며 융·복합 콘텐츠를 창작·기획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참가자 모집 전 설명회 자리를 마련해 ‘ACC 전문인’ 교육에 관한 방향과 비전, 각 세부 교육과정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ACC 전문인’ 교육은 ▲직군 탐색 ▲콘텐츠 발굴·실행 ▲역량강화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ACC 전문인’ 교육 설명회

예비 전문가를 대상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직군을 소개하는 ‘직군 탐색’ 교육을 비롯해 기본 이론 교육부터 장비·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실습과 현장 활동까지 이어지는 ‘콘텐츠 발

굴·실행’ 교육, 전문 창작·제작자 대상 신기술 교육을 진행하는 ‘역량강화’ 교육, 해외 전문 인력 교류 프로그램 등을 알려준다.

ACC는 지난 8년간 ‘ACC 전문인’ 교

육을 통해 3천500여명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배출했다. 2022년부터는 교육 우수 수료자 중 차세대 기획·창작자로 활동할 ‘ACC 젊은 창작자(Young Creator)’를 선정해 지속 지원하고 있다.

‘ACC 젊은 창작자’ 1기(이재린·유현진·최서연·신수정·고유진)는 ACC에서 체험형 가상전시 ‘HYTAG’ 노박을 기획·창작해 지난해 11월 ‘2023 ACT 페스티벌’에서 첫 선을 보였다. 올해는 ‘팀 L23’라는 이름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 공간 사업에 선정돼 지난 22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에서 전시했다.

‘ACC 전문인’ 교육 설명회 참가 신청은 28일까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참가자는 선착순 모집하며, 설명회 당일 ACC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중계를 통한 청취도 가능하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수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